에듀파인 '연착륙'… 의무 도입률 사실상 100% 달성

568개 사립유치원 모두 도입
의무도입·공영형 등 767개원
이덕선 이사장 유치원도 도입
기능개선 거쳐 내년 전면 적용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퇴출이 진행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순항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99.6%에 해당하는 568개원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해 사실상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은 100%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가 지난 15일까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무대상 230개원, 희망유치원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에듀파인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퇴출이 추진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고 개원 연기 투쟁에도 나서면서 에듀파인 도입 찬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결국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이에 힘을 얻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고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과 노후 서버 교체 등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교육청, 사립유치원과 협의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학부모 분담금 등 재원별 예산과 결산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에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쓴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어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원감축이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상명대 조현 외교부 제 1차관 초청 특강 진행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서울캠퍼스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상명대가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개설한 '성공학 특강'의 일환이다.

상명대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초청 특강에서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현황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한용수 기자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상명대 서울캠퍼스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의 역할'을 주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호남대 中 상하이대와 '2+2 복수학위제' 순항

호남대학교가 중국의 글로벌 명문대학인 상하이대학에서 올해 복수학위 과정을 밟을 제2기생 5명을 선발, 파견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상하이대학과 체결한 2+2 복수학위제 협약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2+2 복수 학위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복수학위 신청대상을 전 학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학과와 전공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별로 특화된 복수 학위제를 추진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관광경영학과 학생이 선발돼 중국어학과 중심에서 전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호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2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할 중국어과 학생 4명과 관광경영학과 학생 1명 등 모두 5명을 선발해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한남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최종 선정

한남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남대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성과 평과를 통과,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전환이 됐다.

이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사업화를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특화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용수 기자

배재대 정강환 원장 IFEA ASIA 회장 취임

배재대는 정강환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사진)이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IFEA ASIA) 회장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보령머드축제 개발자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자문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IFEA ASIA 회장을 맡아 아시아권 축제의 글로벌 교류를 이끌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계약학과 신설' 놓고 경북대 본부-교수회 갈등

올해 3월 대학원에 정보과학과 신설
교수회 "학칙·규정 무시, 감사 신청"

경북대학교가 올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선발한 것에 대해 이 대학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올해 대학원 과정에 정보과학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학과는 한국정보과진흥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로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등 총 15명 정원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8일 해당 학과 신설 요청을 받았고, 20일 뒤인 11월 2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3일 입학시험을 실시해 2월 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 지난 1일부터 학과가 운영되는 등 학과 신설과 신입생 입학 등의 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성원과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북대 학칙과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교수회는 이번 학과 신설과 학생 모집이 '부정 입학'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다.

교수회는 정보과학과 신설 외에도 대학 측이 교과목에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본부가 뒤늦게 지난 2월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이 내용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부결했다.

이 의장은 "대학 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 공포하고 교무처장이 '학칙사항은 요식행위다'라고 발언하는 등 학내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많은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가 교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경북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학내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교수회평의회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을 세워 교수회와 학내 다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 측의 이러한 학사운영 등에 항의하기 위해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교수총회를 소집해 항의하고, 교육부에 대학 본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유지상 광운대 총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 선임

광운대는 유지상 총장이 지난 15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유 총장은 "지금 대학은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학사회 봉사의 허브'라는 협의회의 비전을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인 대사협은 교육부로부터 1997년 3월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245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협의체다. 대학과 전문대 재학 중인 회원교 학생들이 국내외 봉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유지상 광운대 총장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대입 특별 설명회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의·치·한·수의예, 약대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중등 최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 대상의 이번 설명회는 하늘교육, 종로학원, 종로학평 3사가 공동 주최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후 내달 12일까지 서울(노원, 성북, 목동, 영등포), 수도권(인천, 일산, 안산, 의정부, 수원, 분당, 부천, 평촌, 파주, 김포)과 지방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